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지난주 실업 청구건 또 하락...노동시장 여전히 강해
- WSJ: 지난 연준 의사록: 대부분의 관리 0.25% 인상 선호
- Bloomberg: 미 작년 4분기 GDP 최종치 연 2.7%... 예비치는 2.9%

[미국 금융]

- CNN Business: 연준의 매파냐, 시장의 비둘기파냐?
- Reuters: 글로벌 주식 시장 안정적... 원유 랠리와 NVIDIA 상승 덕분

[부동산]

- Bloomberg: 미 주택 시장 가치 2조 3천억 달러 감소...2008년 이후 최대폭 하락

[포스트 팬데믹 미 기업 풍토]

- Time: 더 이상 친절함 상사는 없다: 팬데믹 근로자 우대는 끝나
- CNN Business: 고용주, 퇴직금 준다고 퇴직자 침묵 시킬 수 없어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놔

[세미나 알림]

- JP 모건 세미나 알림: Reshaping Geopolitics: The next phase in US-China rivalry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Nvidia, AI 산업 호황으로 칩 수요 회복...PC게임 침체 극복
- WSJ: LinkedIn에 공들이는 직장인들..."댓글 달아 달라"
- Bloomberg: Nikola, 2023년 성장 부진...전기 트럭 시장 진출 진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Jobless Claims Edged Lower Last Week

미 지난주 실업 청구건 또 하락...노동시장 여전히 강해

- 연방 노동부의 이번 주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명으로 3천명가량 줄었다. 4주간 청구 평균은 19만 1천 250건으로 소폭 늘었다.
- 최근 테크, 금융 업계에서 해고의 물결이 일긴 했으나, 특히 환대와 의료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고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지난달 미국인들의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강력한 고용 시장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 증가하기까지 하면서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의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WSJ 기사

WSJ: Fed Minutes Show Most Officials Favored Quarter-Point Rate Rise 지난 연준 의사록: 대부분의 관리 0.25% 인상 선호

- 의사록에 따르면 이들 관리는 현 경제 상황을 볼 때 인플레이 통제를 위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높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또한 0.25%만 올려 금리 인상 폭을 낮추는데도 서로 동의했다는 것.
- 구체적으로 많은 참석자의 입장은, 금리를 너무 빠른 또는 너무 작은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좋은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관리는 너무 빨리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낮출 경우에 대해 우려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Fourth-Quarter GDP Revised Lower on Weaker Consumer Spending 미 작년 4분기 GDP 최종치 연 2.7%... 예비치는 2.9%

- 미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최종치는 당초 예비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목요일 밝혔다.
- 이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수정치가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 지출에 대한 수정 하락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인플레이 조정 지난 4분기 GDP는 2.7%에 머물렀다.
- 다행히 올해 들어서 소비 지출이 반등되고, 낮은 실업률, 강한 일자리 지표가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N Business: It's market bulls vs. Fed hawks on Wall Street 연준의 매파냐, 시장의 비둘기파냐?

-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연준 의사록도 그렇고 클리블랜드 연방 중앙은행 총재 등 일부 연준 관리들의 분명한 입장이다.
- 반면에 시장은 이번 주에 하락했지만, 올해 초에 반등을 계속했다. 금리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준의 이 같은 시장의 입장이 물가 회복

을 위한 연준의 노력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장의 랠리는 오히려 경제에 불붙일 수 있다는 우려다.

CNN Business 기사

Reuters: Stocks steady as crude rebounds, Nvidia lifts chip sector 글로벌 주식 시장 안정적... 원유 랠리와 NVIDIA 상승 덕분

- 대형 반도체 디자인 기업 Nvidia가 9%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선물을 1% 가까이 끌어올렸다.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유럽의 ASM International과 BE Semiconductor도 상승세를 보였다. AI 수요 강세가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 원유 선물의 경우 브렌트유는 목요일 1% 오른 배럴당 \$81.42, 서부 텍사스 중질유도 1% 상승해 \$74.70을 기록 중이다.

Reuters 기사

[부동산]

Bloomberg: US Housing Market Posts \$2.3 Trillion Drop, Biggest Since 2008

미 주택 시장 가치 2조 3천억 달러 감소...2008년 이후 최대폭 하락

- 부동산 중개업체 Redfin에 따르면 미국 주택 시장의 총가치는 지난해 6월 47조 7천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2년 하반기 2조 3천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2008년 주택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 하지만 미국 주택의 총가치는 여전히 전년 대비 6.5% 높으며, 2020년 2월보다 약 13조 달러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주택 구매자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과 높은 모기지율 때문에 타격을 입으며 주택 시장의 경쟁은 약화되었다.
- 한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과 같이 물가가 비싼 도시들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손실이 가장 컸다. 반대로 마이애미의 경우 12월 주택 총가치가 전년 대비 20% 급증했는데, 최근 서부에서 플로리다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포스트 팬데믹 미 기업 풍토]

Time: No More Mr. Nice Boss: Flexible Employers Were a Pandemic Blip 더 이상 친절함 상사는 없다: 팬데믹 근로자 우대는 끝나

- 팬데믹 때 미국 기업의 고용주들은 부족한 노동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사주고, 상여금을 주고, 휴가를 주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 또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성평등적 고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엄격한 성과 평가 역시 줄어들었다.
- 하지만 2023년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테크 업계는 10만명이 넘는 대량 해고를 이어왔고, 고용주들은 더 이상 지난 2년간의 친절한 상사가 아니다. 다시 엄격한 성과 평가 잣대를 들이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감원도 서슴지 않고 있다.
- 또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복지 혜택을 줄이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LinkedIn에서는 2022년 5월부터 11월 까지 6개월간 계약직 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Since April 2021, U.S. employees have increasingly been asked to return
share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hat they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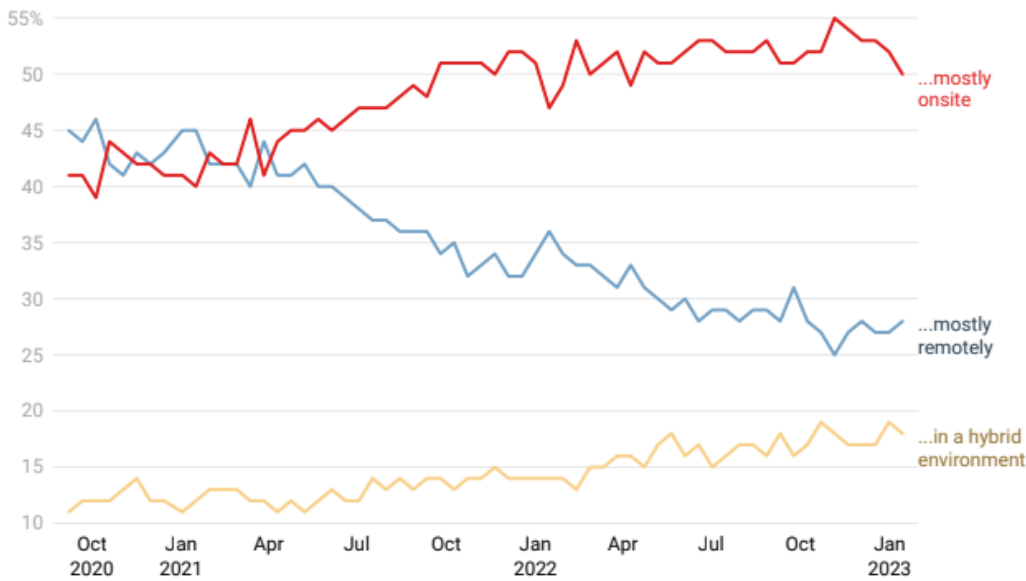


Chart: Elijah Wolfson for TIME • Source: LinkedIn Workforce Confidence Index

친절한 고용주는 더 이상 없다

-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근무 스케줄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미국의 근로자는 64%였으나, 2022년 54%로 줄었다.
-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유급 휴가 일수를 줄이고, 원격 근무를 금지하며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 현재 LinkedIn에 공고된 일자리 중 약 13%만이 원격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2022년 3월의 20%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 고령 근로자, 여성 등의 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의 박탈

- 인종 차별과 증오에 맞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고용할 것을 약속하며 흑인, 여성,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던 미국 기업들이 서서히 DEI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 Glassdoor의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DEI 프로그램을 가진 미국 기업의 비율이 2021년 43%에서 2022년 3분기 41%로 소폭 줄어들었다. 2022년 DEI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혜택 축소로 인한 부작용

- 하지만 McKinsey에 따르면 인종적으로 다양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을 능가할 가능성이 36% 더 높으며, 경영진에서 성별 균형이 가장 높은 기업이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가능성은 25% 더 높다.
- 고용주들이 급여를 줄이고 DEI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결국 기업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 기업들은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매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미 숙련공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장애인, 아이가 있는 부모를 포함한 소수자들을 뽑지 않는다면 충분한 직원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번역: 백승아)

Time지 기사

CNN Business: Companies can no longer silence laid-off employees in exchange for severance**고용주, 퇴직금 준다고 퇴직자 침묵 시킬 수 없어**

- 기업체들은 해고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조건으로 '입단속'을 시키는 조건을 더 이상 달수 없게 된다.
- 이는 연방 노동위원회(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이번 주 결정이다.
- 즉, 고용주는 퇴직금 제공 합의 내용을 종업원이 침묵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written confidentiality clause: 섹션7).
- 그리고 종업원의 고용 조건을 동료, 노조 등 제 3자에 알리는 것으로 고용주는 금지시키지 못한다. (written non-disparagement clause: 섹션8(a)(1))
- 한마디로 아래 사항이 허용된다는 말이다. 사직자가 일터의 고용 이슈로 동료들을 도울수 있고, 자신의 고용 관련 사항을 노조 등 제 3자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글로벌 경제]**Bloomberg: Bank of Korea Keeps Door Open to Further Hike After Rate Pause****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놔**

-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목요일 연간 처음으로 금리를 고정시키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인플레이 막기 위한 긴축 금리 정책 재개 가능성의 문을 열어 놓았다.

-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동결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연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지난달 3명에서 이번에 5명으로 늘었다.
- 이창용 총재는 “물가 둔화로 가고 있고 그 효과를 지켜보자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예상과 달리 물가가 빨리 안 내려오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했다.

Bloomberg 기사

[세미나 알림]

JP 모건 온라인 세미나 알림: Reshaping Geopolitics: The next phase in US-China rivalry

Tuesday, February 28 | 11:00 a.m. ET

Recent events have further strained US-China relations, raising questions on what the next phase will look like in the continuing US-China rivalry.

Please join **Joyce Chang**, Chair of Global Research and **Jahangir Aziz**, Head of EM Economics Research, J.P. Morgan for a discussion with **Bonnie S. Glaser**, Director of Asia Program at the German Marshall Fund and **Minxin Pei**, Tom and Margot Pritzker '72 Professor of Government and Director of Keck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Claremont McKenna College, who will share their perspectives on US-China tensions and transatlantic priorities.

This virtual meeting is open to clients of J.P. Morgan and closed to all members of the press.

세미나 신청 링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Nvidia Forecasts AI Boom, Recovery in Videogame Business After Slump

Nvidia, AI 산업 호황으로 칩 수요 회복...PC게임 침체 극복

- Nvidia는 최근 분기 비디오 게임 사업의 침체로 수익 급감을 겪었지만, AI 산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반도체 칩 수요 감소로부터 극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서둘러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Nvidia의 고급 그래픽 칩이 핵심 부품이 되기 때문이다. ChatGPT에는 Nvidia의 그래픽 칩 약 1만 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Nvidia의 그래픽 칩은 최근까지 고사양 PC 게임에 주력해왔으나, 인공지능 연산에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AI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최근 새

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며 더 다양한 기업이 AI 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WSJ 기사

WSJ: These Three Words Are Taking Over LinkedIn LinkedIn에 공들이는 직장인들...”댓글 달아 달라”

- 최근 미국의 테크 업계 해고 물결이 지나간 후, 직장인들이 LinkedIn에 게시물을 올리고 자신의 프로필이 입소문을 타도록 하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달라”고 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 누군가가 자신의 실적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 지인들이 댓글을 달아줌으로써 채용 담당자와 다른 회사들이 그 게시물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LinkedIn의 알고리즘은 복잡하지만, 다른 소셜 미디어처럼 댓글이 많을 경우 게시물이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 사람들은 이제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처럼 LinkedIn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inkedIn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SJ 기사

Bloomberg: Nikola Misses on Revenue, Deliveries With Weak Growth for 2023 Nikola, 2023년 성장 부진...전기트럭 시장 진출 진통



Nikola Tre BeV Source: Nikola Corp.

- 대형 트럭 제조 업체인 Nikola가 이번주 목요일 발표를 통해 4분기 전기 트럭 납품이 20대에 그치며 131대로 올해 납품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당초

300대였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4분기 수익은 656만 달러로 분석가들의 예상치였던 3천 2백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 Nikola는 자칭 청정에너지 상용차의 선두 주자라고 주장했지만, 전기 트럭을 시장에 내놓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급망 문제와 경영 혼란 등으로 수입과 납품이 크게 줄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발표했다.
- 한편 Nikola는 수소전기 장거리 트럭 판매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수소 연료 공급 기반 시설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매파, 재차 "기준금리 상단 5.5%로 0.75%p 더 올려야"

"금리 고점' 설문조사 결과 지난달 5.0%서 이달 5.25%로 올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긴축 정책을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가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0.7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를 몇 시간 앞두고 이날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볼러드 총재는 "우리가 금리를 5% 위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적절한 최종 금리 중간값이) 5.375%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